

# 세계 최고의 기술과 제품의 경연장

오세종 / 한국광산업진흥회 상근부회장

Optical Fiber Communication Conference and Exhibition  
March 19-22, 2001, Sheraton Convention Center • Anaheim, California

**한국** 광산업진흥회가 설립된 이후 아시아지역의 명성 있는 광관련 전시회인 InterOpto, OptoTaiwan, ILOPE 등을 참관했다.

필자는 이번 미국 캘리포니아 애너하임에서 미국 광학회(OSA)의 주최로 개최된 OFC2001 전시회도 그간 방문했던 전시회들과 대동소이할 것으로 생각했으나 참관 준비를 하면서 OF2001의 규모 및 성장 내용을 차츰 알게 되었으며 또한 국내 31개 참가업체의 철저하고 열띤 참가 준비와 사전 준비에서도 그 명성을 실감하게 되었다.

광관련 전문전시회 중 세계적으로 손꼽히는 전시회인 OFC 전시회는 지난 수년간 꾸준한 성장을 이루면서 현재의 명성과 규모를 이루게 되었다. 약 1,000개의 광관련 기업이 참가하는 등 전시회는 광통신 분야뿐만 아니라 광관련 전 분야를 총 망라하고 있으며 방문자 수만 4만 명에 이른다. 지난 전시회 OFC2000과 비교하면 참가업체수는 483개에서 975개로, 참관객수는 16,934명에서 38,516명으로, 전시면적은 3,400평에서 7,600평으로 두배 이상의 성장을 이루었다.

또한 그 규모뿐만 아니라 광통신과 광관련응용기술 분야의 새로운 개념을 선도해왔다는 점에서 명성과 자부심이 큰 전시회이기도 하다. 예를 들면, 미래 광통신 및 광산업의 근간을 이룰 다양한 핵심 광소자

기술들이 이 OFC를 통해 구체적으로 개념화되고 발전되었기 때문이다.

필자는 한국광산업진흥회 해외전시회 참관단장으로 광주광역시를 비롯한 정부관계자, 언론인, 광관련업체 대표 등 23명과 전시회 참관 및 2001국제광산업전시회의 홍보를 위해 3월19일 김포공항을 출발했다.

OFC2001은 모두 4개의 홀로 구성되어 있으며 한 홀의 규모가 마치 타 전시회의 규모에 버금가는 수준이었다. 참관단 중 본 진흥회 직원들은 본격적으로 2001 국제 광산업전시회의 홍보를 위해 분주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으며 필자를 비롯한 참관단은 세계최고의 기술과 제품을 경험하기 위해 전시회장으로 움직였다.

참관 2일째인 20일에는 국내 참가업체의 현황파악 및 의견 수렴을 위해 30여개 국내 전시업체를 방문하여 전시회 참가 성과 및 부스 방문자들의 반응을 파악하는 등 참가업체 격려를 위해 전시장을 순회하였다.

## OSA와 교류협력방안 논의

오후에는 본 진흥회와 OFC의 주최이며 미국 내 광관련 최대의 학회인 미국광학회(OSA)와의 협의회가 개최되었다. 전시장 인근의 힐튼호텔 회의장에서

# OFC 2001 참가기



▲ 전시장내에 설치된 사이버 전시장  
 ◀ 진흥회 주최로 개최된 OFC 2001 참가 및 참관업체 간담회 장면

개최된 협의회에는 필자를 비롯한 본 진흥회측 관계자와 미국광학회의 대표, 부대표, 상임이사 등과 양기관간의 지속적인 협력과 국내 광관련 업체의 이익도모를 위한 여러 안건을 논의하였다.

### OSA와 협의내용

- OFC한국관 설치문제
- 본 진흥회 개최 2001국제광산업전시회 홍보
- OSA주최 행사의 한국유치
- 양기관 회원사간의 교류 활성화 등

또한 저녁에는 Ramada Plaza Hotel 만찬장에서 본 진흥회의 주최로 OFC참가·참관업체 대표자 및 정부, 학계, 언론사 관계자가 참석하는 만찬간담회를 개최하였으며 동 간담회에서는 OFC전시회 참가·참관업체의 격려 및 정부의 광산업지원의지 및 계획 등을 논의하였으며 해외 전시회 참가 및 참관과 관련된 애로사항·건의사항 등을 수렴하였다. 또한 참석자들 사이에 전시회를 참가한, 그리고 참관한 소감 등의 정보를 서로 교류하면서 간담회를 마쳤다.

참관 3일째인 21일에는 본 진흥회와 교류관계를 구축하고 있는 해외 광관련 협회, 학회 등과 간단한 간담 등을 나누었다. 북미광산업협회인 OIDA는 현

재 미국과 일본이 추진 중인 광관련 공동 프로젝트를 주제로 전시회에 참가하였으며 현재 진흥회가 벤치마킹을 하고 있는 성공적인 국제 공동 프로젝트로 향후 본 진흥회 회원사 및 국내 광관련 업체와 광선지국인 미국, 일본 등의 연구소 및 기업 등과 공동프로젝트 구성을 추진 할 계획이다.

### OITDA와 교류협력방안 논의

일본광산업협회인 OITDA는 일본에서 개최되는 전시회인 InterOpto의 홍보를 위해 부스를 꾸몄다.

전시회 담당자인 Shinyu Kawakubo는 한국에서 본 진흥회의 주최로 개최되는 2001국제광산업 전시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되길 기원했으며 향후 InterOpto에 참가하는 국내 광관련 업체들의 대표로서 본 진흥회와 지속적인 교류 및 협력을 이루어 나가자고 약속했다.

### PIDA와 교류협력방안 논의

대만의 광관련협회인 PIDA에는 PIDA의 대표와 국제프로젝트를 담당하고 있는 Pamela Hsiao가 홍보 부스를 지키고 있었다. PIDA(대만 광관련협회) 또한 본 진흥회가 추진중인 국제 광산업전시회의 강력한 후원은 물론 자국내 광관련 업체에 본 진흥회를 대신

하여 적극적인 홍보를 약속했다. 또한 금년 7월 일본에서 개최되는 미국, 일본, 대만 및 스코틀랜드 등 6개국의 광관련 협회가 참가하는 협의회에서 다시 만나기로 하였으며 본 진흥회의 2002년도 세계 광관련 협회 연차 협의회의 한국 유치 의지를 표명했다.

이외 미국 플로리다 광산업 집적화 단지에 있는 플로리다 광산업협회인 FEOLA, 세계 최고의 광관련 교육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는 미국광기술학회인 SPIE등도 각 기관의 홍보를 위해 분주히 움직이고 있었다.

이번 OFC전시회에 유일하게 스코틀랜드가 10개의 부스로 구성된 국가관을 구성하여 참가하였다. 현재 본 진흥회도 몇몇 세계 우수 광관련 전문 전시회에서 한국관을 구성기 위해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데 국가관이라는 신뢰성과 한 국가의 생산품을 한 곳에서 만나볼 수 있다는 장점 때문인지 타 부스보다는 붐비는 듯 했다.

동 전시회에 참가한 국내 업체들을 대부분 소기의 성과를 달성했을 것으로 판단되며 국내 업체의 부스를 방문했을 때 그들의 열띤 의지와 열기를 느낄 수 있었다. 본 진흥회 회원사를 비롯한 대부분의 업체가 수백 명의 방문자를 접했으며 Lucent, Corning, NcoOptic, Hirose, Cisco 등을 포함한 바이어들과 다수의 판매상담, 투자상담등을 하였으며 몇몇 업체에서는 해외 유수의 기업들과 판매, 투자 등과 관련된 계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또한 동 전시회에 본 진흥회와 같이 참관한 기업들도 차년도부터 OFC전시회를 참가할 계획을 세우기도 했다.

#### 향후 참관방향

그 동안 본 진흥회의 주최로 몇 번의 해외 전시회 참관이 이루어 졌지만 현재까지는 필자가 생각하기에 미숙한 점도 많았었고 과연 업체에 득이 되는 참관이었을까하는 여운을 많이 남기도 했었다. 매회 참관 시마다 진행이 좀 더 원활해지고 참관 프로그램이 업체에 직접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발전



▲ 세계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OFC2001전시장 전경

앞으로 해외 전시회 참관시  
회원사에게 직접 도움이  
될 수 있는 전문가 동반 동향분석,  
정보 교류를 위한 업체 간담회,  
해외 광관련 업체 및 기관견학등  
다양한 프로그램개발에  
노력할 계획!

이 되고 있지만 아직도 그 완성도에 있어서도 미흡하다고 생각된다. 향후 참관 프로그램이 업체에 직접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전문가 동반 동향분석, 상호 전시회 참관 정보교환을 위한 참관업체 간담회, 해외 광관련 업체 및 광관련 기관 견학 등으로 다양하게 구성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많은 노력과 경험이 필요하다고 진흥회 또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는 바이다.

짧은 5박6일간의 참관이었지만 필자에게는 아주 소중한 경험을 안겨 주었으며 국내광산업의 미래상을 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고 국내의 광산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관련 업체를 위해 더욱 전념하여야겠다는 마음가짐을 재확인 할 수 있는 뜻 있는 참관이였다.